

9. 돼지감자 (*Helianthus tuberosus* L.)의 栽培方法, 收取管理,

地方適應性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林根發*, 李浩鎮

돼지감자를 새로운 에너지 作物로 栽培키 위한 기초조사로서 파종시기결정, 재식밀도에 대한 反應, 시비 効果, 地方適應性試驗과 관리方法에 關한 實驗을 실시하였는데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봄철 塊莖의 재식시기를 4월 7일부터 20일 간격으로 6월 27일까지 파종하였을때 적어도 5월 말까지는 塊莖의 파종을 완료하여야 정상적인 生育을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塊莖收量과 地上部收量이 감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늦을 경우 종묘용 塊莖이 퇴화하여 不利하였다.
2. 적정재식거리는 JA2를 利用하였을때 $15 \sim 30\text{ cm} \times 50 \sim 70\text{ cm}$ 의 휴폭과 주간거리 조합에서 $30\text{ ton}/10\text{ a}$ 以上의 塊莖收量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JA2 栽培에 석회 $500\text{ kg}/10\text{ a}$, 질소 $10\text{ kg}/10\text{ a}$, 인산 $10\text{ kg}/10\text{ a}$, 칼리 $10\text{ kg}/10\text{ a}$ 을 施用하는 것이 塊莖收量을 가장높여 $4.14\text{ ton}/10\text{ a}$ 정도로 無肥에 비하여 94%增收되었다.
4. 경기 수원, 충남 대전, 전남 광주, 경북 경산에 JA3 및 JA7

의 적응성을 시험한 결과 光州와 경산에서 4ton/10a 以上的塊莖收量을 확보할 수 있어 南部地方이 보다 JA栽培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나 전국적인栽培가 可能하였다.

5. 돼지감자 괴경의 파종은 最初 1次만으로도 充分하여 塊莖收穫後 그 이듬해 찬존하는 小型塊莖에 의한 發生個體로서 充分한 군락이 확보될 수 있었으나 과밀상태가 되므로 속음작업을 통하여 적정간격을 유지시킬 必要가 있었다.

6. 6월 初旬부터 1회내지 2회 적심하여 주는 것이 도복을 방지키위한 단간화에 有効하였으며 塊莖收量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 地上部를 청예용으로刈取하는 것은 塊莖收量을 감소시켜 青刈飼料生產과 塊莖生產 겸용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였다.